

제11강 문체만들기 II

(1교시)

▲ 문체의 여러 유형

- 강건하면서도 그 흐름이 유연한 문체
- 평이하면서도 담백한 설명조 문체
- 작가 주장의 피력과 설득에 역점을 둔 논설적 문체
- 절제된 어휘 구사로 남성적 박력을 드러내는 문체
- 미적 감각의 시적, 서정적인 문체
- 간결하면서도 탄력 있는 문체
- 관념적, 추상적 어휘 구사의 현학적 문체
- 지적이며 모던한 문체
- 소박, 진솔하여 질깃질깃 구수한 문체
- 어둡고 음산한 문체
-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문체
- 단문 중심의 호흡이 빠른 문체
- 사물관찰의 깊이와 밀도를 중시하는 묘사체 문체
- 건조하고 딱딱하나 이미지 전달이 인상적인 문체
- 풍자적인 요설과 유머, 위트의 감칠맛 나는 문체
- 속어의 거침없는 구사에 의한 생동감 있는 문체
- 의지적인 어투의 다소 장황한 문체
- 난삽하나 지적 욕구 충족을 주는 난해, 알쏭달쏭한 문체
- 미문의식에 의한 화려한 문체
- 감각적, 관능적 문체
- 의식의 흐름, 혹은 내적 독백의 주관적 문체
- 전통적인 운율을 가진 운문체, 혹은 만담조의 킁킁한 문체
- 대화 중심의 구어체 문체
- 접속어, 조사 절제의 간결, 명쾌한 문체
- 띄어쓰기 등을 무시한 격식 깨기의 부정과 실험의 문체
- 주어 생략이 많은, 서술부 중심의 문체
- 방언과 조어 혹은 의성어, 의태어 등 개인어 활용의 탐구적 문체
- 아이러니에 의한 감춤과 드러냄의, 배배 꼬여 뒤틀린 문체

(전상국 「당신도 소설을 쓸 수 있다」에서)

예문1)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장쾌한 폭력을 태운 채로 부월이는 끄끙 앓는 소리를 토하기 시작했다. 기우는 배처럼 그녀는 급격히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고물이 물에 잠겼다. 그녀의 갑판이 물에 잠기고, 이물도 물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돛대 끝이 물에 잠기면서 그녀는 완전한 침몰의 순간을 맞았다. 침몰하는 고단한 현재를 거슬러, 침몰하는 욕된 과거를 허위단심 거슬러 다니는 천지가 온통 설원처

럼 새하얗게 표백되는 기분을 맛보았다. 새하얗게 변한 과거 속을 흔들리는 해초처럼 사뭇 부대끼며 떠밀리다가 그녀는 마침내 절정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윤홍길 「완장」에서)

예문2)

어린 마음으로 그때처럼 가난의 서러움이 가슴에 북받친 적도 없었다. 둘러친 가마니때기를 쭈석대며 개구멍을 만들어 들어가려다 들켜 발길에 차이고 뺨이 돌아가게 얻어맞기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으며, 그럴수록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꾀와 방도를 궁리했고, 개구멍 틈치기를 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수법이 있잖을까 해 주야로 골똘히 생각하길 거듭 되풀이하곤 했던 거였다.

(이문구 「그가 말했듯」에서)

예문3)

밖으로 나온 여자는 놀란다. 그녀는 신발을 끌고 마당 가운데로 나선다. 눈이 하얗게 쌓였고 또 소리 없이 내리고 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쳐다본다. 점점이 검게 눈송이들이 하늘에 짝 차 있다. 얼굴 위에 와서 닿는 그것들의 감촉은 상쾌하다. 그녀는 입을 딱 벌린다.

「아, 신부는 좋겠네. 첫날밤에 눈이 쌓이면 부자가 된다는데. 복두 많지.」

그녀는 두 눈을 껌벅인다. 수많은 눈송이들이 눈 앞에서 명멸한다. 그녀는 신부의 얼굴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신부들은 똑같은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것은 행복, 기대, 불안. 또는 그 전부…….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쪽 편 채 신발을 질질 끌어서 쌓인 눈 위에 두 갈래 길을 낸다. 그녀는 그렇게 마당을 빙빙 돈다. 눈송이가 금세금세 머리 위에 얹힌다. 그녀는 문득 신발 끄는 일을 그만둔다. 문간으로 간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소리없이 대문을 비집고 밖으로 나간다.

(서정인 「강」에서)

예문4)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친 벌레처럼 모로 누워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어머니가 쪽마루 끝에 밥상을 올려놓았다. 의사가 대문을 들어서서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예문5)

그가 누구였던가. 남편이 오래 집을 비웠던 어느 봄날. 혼곤한 낮잠 속에서 꿈결처럼 받아들였던 사내. 남편은 옛 무덤에서 녹슨 칼을 찾아 돌아왔고, 달을 채운 아이는 그녀의 자궁을 찢고 가슴을 찢고 세상으로 나왔다.

강 쪽에서 또다시 불꽃이 오르고 외침이, 탄식이, 흐느낌이 정욕과 혼란으로 가득 찬 어둠을 찢으며 빛의 다발로 흩어졌다.

(오정희 「불놀이」에서)

▲ 앞선 문체에서 배우자

가.

예문1)

“이 바보 녀석아!”

“애! 너 배넛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니가 고자라지?”

“뭐? 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핵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나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욕을 올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김유정 「동백꽃」에서)

예문2)

오늘도 들어오며 일변 등목부터 서둘렀지만 질어 터진 밥에 잡을 게 없이 싱겁하게 불가심한 탓인지 뒷맛이 특특하니 개운치 않았고, 끓는 열무 숙음국에 말아 김비김비 떠넣은 바람에 땀만 배어, 옆구리로 오금탱이로 찢덕거리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래도 김봉모는 밑이 질겨 줄담배를 태려문 채 뒷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속을 끓이고 있었다. 해 있어서 다북썩이나 한 전 배어 뉘었더라면 발마당귀에 모깃불이라도 놓고 나앉아 보련만, 매양 마음만 이미르저미르하다 으레 손이 안 가 저녁마다 뒷동을 못 보니 뉘더러 지청구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에서)

예문3)

가메뚝의 첫 집이 있기도 한 들샘머리에는 미친년이 살고 있었는데, 미친년은 마침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괴이한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소리를 질러대어 나의 발길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항상 손발을 묶인 채 방안에서만 갇혀지내는 미친년은 어찌다가 식구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묶인 끈을 풀고 곧장 집을 빠져나갔다가 얼마 후에 아기를 뱃 채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이번에는 목을 졸라서 죽여버린다고도 했다. 미친년의 울부짖는 소리에 놀란 내가 두 귀를 막다시피 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문둥이가 사는 집이 나온다.

(송기원 「정애 이야기」에서)

예문4)

아내와 자식들은 술을 과히 마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술을 과히 마셔서 그나마 헛것을 견딜 수 있었고, 외양간 치우기 같은 도저히 안할 수 없는 일에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농한기가 길어서 그렇겠지, 몸뚱이를 쓰지 않으니까 평생 옥죄었던 정신이 게게 풀어진 거야 했지만, 그의 자기진단은 틀렸는지 모내기철에도 혼미는 계속되었다. 경운기 대가리로 논을 갈다가 나자빠진 적도 있었고, 이양기를 몰고 가다가 논바닥에 고꾸라진 적도 있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오토바이를 몰고 아무데로나 쏘다니기 시작한 것은.

(김종광 「낭만 삼겹살」에서)

나.

예문1)

허턱 주안(朱安) 쪽을 향해 걷는다. 얼마 안 가서 시가지는 끝나고 길은 차츰 어두워진다. 길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세차진다. 꺾 비를 몰아붙이며 우산을 떠받는다. 황서방은 우산을 뒤집히지 않으려 바람을 따라 빙그르 돌아본다. 그러면 비는 아이 얼굴에 흠뻑 쏟아진다. 그래도 아이는 별로 소리가 없다. 권서방더러 성냥을 그어대라고 한다. 그어대면 얼굴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빛물 흐르는, 비비틀린 목줄에서는 아직도 발랑거리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또 친다. 또 빙그르 돌아본다. 바람이 갑자기 반대편에서도 친다. 우산은 그제 뒤집히고 만다.

(이태준 「밤길」 에서)

예문2)

한동이가 달려들 태세를 보이자, 대위가 가로막으며 모두에게 들릴 만큼 소리쳤다.

“패죽이라고 놔둬!”

병어리가 한쪽 무릎을 꿇고 옆으로 넘어졌다. 맨 뒤에 섰던 자가 발길로 오가의 턱주마리를 돌려치고, 일어서려 용을 쓰던 오가는 뒤로 개구리처럼 나자빠졌다. 그는 몸을 돌려 엉금엉금 기어서 해변을 향해 몇발짝 움직였다. 철봉을 든 자가 쟁걸음으로 따라가 오가의 허리를 후려했다. 병어리가 뭐라고 긴 소리를 질렀다. 철봉이 서너 차례 그의 허리와 등을 두들겨대자 그는 붉은 흙먼지 속에 코를 박았다. 처음에 말을 붙였던 조원이 그의 머리털을 잡아 뒤로 제껴보았다. 철봉을 가진 자가 물었다.

(황석영 「객지」 에서)

예문3)

“아무렴, 백골단이 귀정이를 죽였으니 너희들도 의당 백골단을 죽여야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냐 이거야. 아, 안 그래? 내 말이 틀렸냐구?”

그러나 그 목소리는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화환을 깃뺏았던 사내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한발 짝씩 더 죄어들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단세포적 복수 심리를 갖고 모이진 않았소. 우리는 또 다시 누구의 피를 보자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오. 분명히 말해두지만, 우리는 다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싸우려 할 뿐이란 말이오.”

(김소진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에서)

(2교시)

▲ 필사하기

예문1)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나는 감기가 들었다. 여전히 으스스 춥고 또 골치가 아프고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이 씁쓸하면서 다리 팔이 척 늘어져서 노곤하다. 아내는 내 머리를 쓱 짚어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아내 손이 이마에 선뜻한 것을 보면 신열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생각을 하자니까 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네 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넌름 받아먹었다. 짹짹한 것이 짐작 같아서 아파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 버렸다.

(이상 「날개」에서)

예문2)

김군! 거들 말한다. 나도 사람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떠나는 날부터 식구들은 더욱 곤경에 들 줄도 나는 안다. 자칫하면 눈 속이나 어느 구렁에서 죽는 줄도 모르게 굶어 죽을 줄도 나는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도 남의 집 행랑 어멈이나 아범이며, 노두에 방황하는 거지를 무심히 보지 않는다. 아! 나의 식구도 그럴 것을 생각할 때면 자연히 흐르는 눈물과 뿌직뿌직 찢기는 가슴을 덮쳐 잡는다. 그러나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쥔다. 눈물을 아니 흘리려고 하며 비애에 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울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었으며 비애를 상하는 것은 우리의 박약을 너무도 표시하는 듯싶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참고 분투하려고 한다.

(최학송 「탈출기」에서)

예문3)

초여름이었다. 어느 날 밤, 조금 떨어진 멸치 후리막에서 켤과리 소리가 들려왔다. 여름들어 첫 켤과리다. 마을은 갑자기 수선대기 시작했다. 멸치떼가 몰려온 것이다. 멸치떼가 들면 막에서는 켤과리나 나팔로 신호를 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막으로 달려가서 그물을 당긴다. 그물이 올라 수확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깃'이라고 해서 대개는 잡어를 나눠 받는다. 수고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후리를 당기러 갈 때는 광주리나 바구니를 결코 잊지 않았고 대부분이 아낙네들이다. 갯마을의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때다.

(오영수 「갯마을」에서)

예문4)

왕은 어깨를 움츠리며 가을의 여윈 손톱의 창백한 빛깔을 바라보며 씁쓸히 미소지었다. 새들도 깃을 오므리고 다가올 겨울의 적막한 추위를 덥힐 여름철의 이야기를 반추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이 둥지 속에 눈감고 있으며, 하늘도 동면문(冬眠門)의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가며 쓸쓸한 한숨을 내뿜고 있었다. 하늘이 동면 속에 몸을 쉬면 별들이 쏟아져내려와 공허를 메울 게다. 벌써 별들은 하나씩 하나씩 공허의 하늘로 나래 펴 내리기 시작했다.

(박상룡 「세 變調」에서)

예문5)

저는 영문도 모르고 김치 담그는 그 여자 곁에서 잔심부름을 해주었어요. 생강 껍질도 벗겨 주고, 마늘도 짓쪼개 주었으며, 우물에서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을 때는 두레박질도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아

무래도 그런 일이 서툰 듯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눈을 파시면서도 단숨에 척척 해내는 무생채 써는 일은 특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를 깉둑깉둑깉둑…… 경쾌했지만, 그 여자의 도마질 소리는 깉……뚝……깉……뚝……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파란 페인트칠이 벗겨진 대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대신 그 대문으로 어머니께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예문6)

마침내 사람들의 두런거림이 내 귀 끝에 와 닿았다. 그리고 가닥이 분명해진 빛줄기가 바닥의 나무결을 드러내면서 풀이 타는 냄새와 함께 술내가 코 끝에 진하게 묻어났다. 그리고 뒤미처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밤 낚시터의 불빛처럼 실내에 둥글게 원을 형성하고 떠 있는 수십 개의 촛불들이었다. 거기서 내 의식은 도마뱀의 꼬리처럼 문득 잘려 달아나고 있었다. 그 순간엔 내 존재가 촛불 하나의 의미도 지니지 못한 채 그저 옷을 걸친 또 하나의 공간으로 공중에 떠 있을 뿐이었다. 필시 환기창도 없이 사면이 가로막혀 있을 어두운 실내에서의 소요가, 그러나 내가 나타남과 동시에 일시에 멎었다. 어둠 속에서 가만가만, 따로이 혹은 두셋씩 부유하고 있던 저들의 시선이 내가 서 있는 공간의 둘레로 몰려들었다. 얼핏 눈가늠으로 보기에 십여 명쯤 돼 보였다.

(윤대녕 「은어낚시통신」에서)

예문7)

아빠는 문 저쪽에서 문고리를 잡은 채 외치고 있었다. 결국 오빠와 여자애는 아닌밤중에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원조교제, 그러니까 청소년 성매매는 오고간 돈이 없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인가 하는 것도 둘의 합의 아래 동거하는 게 분명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빠와 여자애는 거의 밤새도록 경찰에게 시달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도끼를 치켜들고 아빠의 방으로 돌진했다.

(김영하 「오빠가 돌아왔다」에서)

예문8)

그는 45번 버스의 종점에 도착했다. 버스정류장에 자전거를 두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 때문에 자전거로 오르긴 벅찬 동네였다. 언덕 꼭대기에는 고층 아파트가 동네를 굽어보고 있었다. 피아노 학원을 끼고 뒷길로 들어서니 가로등도 없는 후미진 골목길이 나왔다. 전봇대 아래에 라면 박스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성냥을 꺼내 불을 피웠다. 박스가 젖어 있어서 불은 이내 꺼졌다. 그는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었다. 조금 추워지기 시작했다. 성냥은 한 개비밖에 남질 않았다. 대문 앞에 화분이 버려져 있는 게 보였다. 화분 안에는 뿌리가 드러난 화초가 들어 있었다. 나무는 병에 걸렸는지 잎이 하얗다. 그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나뭇가지에 불을 옮겼다. 나뭇가지가 타면서 매운 연기가 나왔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 그는 눈물을 약간 흘렸다.

(윤성희 「거기, 당신?」에서)

필사를 통한 문체 연구의 순서

1)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필사한다.

2) 그 다음 자신과 전혀 경향이 맞지 않는 작품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필사한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아하는 작품과 좋아하지 않는 작품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3) 자신의 글이 대체로 어떤 작가와 비슷한지를 살펴본 후, 그 작가의 작품을 필사한다.
(자신과 문체가 비슷한 작가가 누구인지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것.)

4) 자신의 문체를 밀고 나갈 것인지, 다른 문체를 택할 것인지 고민 하게 될 것이다.

단, 문체는 변하기 마련이니 하나의 문체가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금물!

▲ 문체의 힘

예문1)

물론 이제 곧 펜타곤 당국이 만천하에 천명한 대로 기계의 점검이 끝나는, 앞으로 일 분 후면 엄청난 폭음과 함께 이 향미산(向美山)은 온통 불덩어리가 되어 꽃잎처럼 흩어질 테지요. 그리고 흩어진 자리엔 이방인들의 그 넘치는 성욕과 식욕을 시중들기 위하여 또 하나의 고층빌딩이 아담하게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최후니깐요. 이제 저의 실력을 보여줘야지요. 예수의 기적만 귀에 익힌 저들에게 제 선조인 홍길동이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통쾌하게 재연함으로써 저들의 심령을 한번 뿌리째 흔들어 놓을 생각이니깐요. 물론 저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어머니 그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단 십초 그렇군요. 이제 곧 저는 태극(太極)의 무너로 아롱진 이 런닝셔츠를 찢어 한 폭의 찬란한 새 깃발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잡아 타고 바다를 건너야지요. 그리하여 제가 맞본 그 위대한 대륙에 누워 있는 우윳빛 피부의 그 윤이 자르르 흐르는 여인들의 배꼽 위에 제가 만든 이 한 폭의 황홀한 깃발을 성심껏 꽂아 놓을 결심인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머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당신은 저를 못 믿으시고 몸을 떠시는군요. 참 딱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저의 이 특 솜아 나온 눈깔을 말입니다. 글썄 이 자식이 그렇게 용이하게 죽을 것 같습니까? 하하하.

(남정현 「분지」에서)

해설)

소설가 남정현 : 1965년 소설 '분지'로 필화사건을 겪으며 보안법 위반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음. 이 작품의 힘은 바로 '문체'

(시 : 양성우 <겨울공화국>, 김지하 <오적>, 이산하 <한라산>, 오봉옥 <붉은산 검은피> / 소설 : 남정현 <분지>, 현기영 <순이삼촌> 등이 필화사건의 대표적 작품.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고리끼의 <어머니>는 이적표현물로 내몰렸으며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최근에야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또한 『노동해방문학』, 『실천문학』, 『창작과 비평』, 『사상계』, 『다리』 등의 문예지들은 필화사건으로 폐간되기까지 함.)

예문2)

똥간의 본명은 동관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자호(字號)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동관이라는 이름이 똥간으로 변한 데는 수다한 사연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똥간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간이를 낳고 똥간이를 만들고 똥간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로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똥간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똥간이 살다간 은척읍에서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관을 칭할 때 똥간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똥간이 보고 듣는 데서는 아무도 그를 동관으로도, 똥간으로도 부를 수 없었다.

똥간은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형 은관과 대략 일천 회 이상의 드잡이질을 벌였다. 그 드잡이질은 똥간의 타고난 체격에 담력과 기술, 자잘한 흥터를 안겨주며 그가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깡패로 우뚝 서는 바탕이 되었다. 은관은 성격이 비교적 온건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서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합기도 삼단, 유도 사단, 태권도 삼단의 면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조심단>이었다. 나쁘게 발음하면 그대로 욕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은관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고 없는 데서도 혹시 신출귀몰하는 그들 형제가 주변에 없나 살피고 나서 <똥간이가 조심다니하고 술 먹다가 전당포 주인을 깔고 앉은 사연> 등을 즐겼다.

(성석제 「조동관 약전」에서)

해설)

성석제의 소설에서는 문체와 사상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90년대 소설의 경향을 엿고, 힘 있는 문체를 사용한다.

결국 문체란 기성의 관례를 뒤엎는 기반이기도 하며, 또한 기성의 관례를 뒤엎는 작품들은 반드시 새로운 문체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문체는 만들어진다.

문체를 만든다는 것은 곧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